

기술 특 집

월드컵 길거리 응원의 성과

정영수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지난 6월 한 달은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환희와 열광의 도가니였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다. 태극전사 대표팀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 히딩크 감독의 치밀한 작전, 운동장과 길거리에서의 응원 등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세트 플레이”의 진수를 보여주었던 6월 한 달이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단순히 축구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태극전사”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로 전쟁에 임하는 정신 자세로 경기를 했다고 한다. 대표팀 선수들이 이렇게 강한 정신무장을 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대한민국 응원단 “붉은 악마”의 역할이 컸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응원에서 이번에 무엇보다도 특이하게 나타난 모습이 바로 “길거리 응원”이었다. 이는 물론 전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백만명의 응원단이 각 도시의 대형 전광판 앞에 모여 열광하면서 응원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길거리 응원은 대형 전광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교한 동화상을 중계할 수 있는 고성능 대형 전광판이 정확히 언제부터 등장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전에는 그저 정지 화면의 흑백광고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화려한 전광판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광판의 도움으로 월드컵 기간 동안에 보여주었던 길거리 응원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것을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광한 것은 아마도 광복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다. 누구나 붉은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나서는 선수들의 동작 하나에 함께 울고, 웃고, 어깨동무하고, 박수치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멋지게 보여준 것이었다. 평소에 부질없는 지연, 학연, 인연 등으로 갈라지고 갈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온 국

민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지연, 학연, 인연을 선거철마다 들고 나와서 득표 활동을 하면서 갈등을 부추겼던 일부 정치인들은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히딩크 감독의 훈련 방법과 선수 등용 원칙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아온 것이다. 우리와 같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내편, 네편을 가르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패배 뿐이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해냈다는 것이 자랑스롭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금기를 타파하였다.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피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붉은 색이었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붉은 색은 그리 환영받을 수 없는 색깔이었다. 1960년대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 색이라고 하여 “용공분자”로 오해를 받았던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붉은 색을 기피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의 응원단은 과감하게 붉은 색을 내걸었고, 이것이 정열의 상징으로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데 성공함으로써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떨쳐버렸던 것이다. “붉은 악마”의 선택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 했던 것 중의 다른 하나는 신성하게 다루어야 할 태극기를 함부로 다루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태극기는 국기함에 고이 보관하였다가 국경일에 게양해야 했고, 한 때는 국기 하강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도 오후 5시만 되면 국기 게양대를 향해 정지해 서서 경건한 예의를 표시해야만 했던 때도 불과 10여년 전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 응원을 통하여 이러한 금기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물론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까지 태극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보니 태극기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멀리있고, 경건하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태극기를 월드컵 기간 동안 젊은이들이 몸에 감고, 휘날리며 다니고, 웃을 만들어 입고, 태극 문양으로 판박이나 보디 페

인팅을 하여 우리에게 밀착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가졌던 것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민족교육의 산 현장이었다.

셋째,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였다.

세대간 갈등은 다름 아닌 기성세대의 성장세대에 대한 우려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흔히 하는 말로 “요즈음 젊은 애들은 ……” 하면서 은연 중에 젊은 세대를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기우인 것이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 증명된 것이다. 과거 X세대, Y세대, N세대 등으로 표현할 때에 갖고 있었던 젊은 세대에 대한 부정적 우려는 이제 월드컵을 치루면서 사라졌고, W(Worldcup)세대, R(Red)세대 등으로 새롭게 지칭되는 젊은 세대는 불신과 우려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세대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세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과 싹을 보았고, 이것을 잘 가꾸고 다듬어 간다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진출”을 언제 꿈이나 꾸었던가? 16강, 8강을 거치면서 기성세대들은 이제 여기서 대충 끝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젊은 세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결승까지 간

다는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았으며, 이러한 강인한 의지가 힘이 되어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대표팀 선수들도 이러한 열망에 힘입어 결승까지 간다는 의지로,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하면서도 승리의 투혼을 불살랐던 것이다. 그 유명한 카드섹션의 구호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월드컵 세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길거리 응원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자율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 든든하다. 전광판 앞에서 질서있게 진행된 대규모 길거리 응원의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소득일 것이다.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월드컵도 끝났다. 사회 곳곳에서는 포스트 월드컵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포스트 월드컵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박한 심정으로 기대해 보는 것은, 프로축구의 K리그, 프로야구의 한국시리즈 등의 경기 결승전만이라도 다시 한 번 광화문과 시청을 비롯한 각 도시의 대형 전광판 앞에 온 국민들이 모여 길거리 응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